

곡물생산대성 흑룡강, '맞춤형 농업' 새 경로 모색



흑룡강성 가목사시 탕원현에 위치한 흑룡강보화유업그룹회사 생산작업장

우리 나라 곡물생산대성인 흑룡강성이 최근 수년간 '맞춤형 농업'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장 수요와 긴밀히 연결하여 밭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맞춤형 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있다.

가목사시 탕원(汤源) 현에 위치한 흑룡강보화위(谱华威) 유업그룹회사에서는 현대화 유제품 생산라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신선한 우유에서 분유 가공까지 단 두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저온살균 공정을 채택하여 제품의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산작업장 두려상(杜丽祥) 주임은 고객의 맞춤형 요구에 따라 중앙 제어 컴퓨터로 제품 레시피를 조정한다고 소개했다.

오상(五常)시교부대원(乔府大院)

농업주식회사 생산작업장에서는 쌀 제품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교부대원 마케팅부 왕혜선(王慧先) 총감은 "우리는 주로 음식점 체인 기업, 회사 및 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57만명의 맞춤형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맞춤형 농업' 면적은 매년 약 32,667 평방키로메터에 달하고 연간 판매액은 3억원을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회사는 쌀연구기지 구축, 모내기축제 개최, 고객 초청 농경문화 체험 행사, 농업·문화·관광 융합을 통한 장기적인 맞춤형 소비를 확대해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안시 동성향의 비닐하우스에서는 수박, 참외, 감 모종이 푸르름을 뽐내고 있다. 동성향당위 서기 왕뢰(王磊)는 지난해 대형 마트와 음식점 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시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10개의 과일·채소 비닐하우스를 만든 것을 기반으로 올해에 10개의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세워 배추, 콩 등 채소를 재배하도록 농민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년간 흑룡강성의 '맞춤형 농업' 발전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흑룡강성의 맞춤형 재배 규모는 773.33 평방키로메터, 사육 규모는 43만마리, 농업 총생산액은 37억원에 달했다.

흑룡강성농업농촌청 시장처 펑박(彭博) 부처장은 흑룡강성은 쌀 맞춤형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선식옥수수, 고급 축산물, 랭수어, 산특산물 등 우세 특색 품종의 맞춤형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일강다정'(一强多精)의 '맞춤형 농업' 발전 구도를 적극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진기, 경영주체 신용 데이터 100% 공유 실현



경진(京津) 중관촌과학기술성(城) / 신화넷

경진기(京津冀) 지역이 경영주체 신용 데이터 100% 공유를 실현했다.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경진기 세곳은 지역간 신용 관리감독 '공동체'를 구축했는데 이미 7억 2,400만개의 신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경진기 세곳은 신용 데이터 교환 및 공유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통일된 사회신용코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신용 데이터 표준 불일치, 공유 부족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관련 표준을 통해 경진기 세곳은 1,700만개에 육박하는 기업, 자영업자, 사회단체 등 각종 기관의 통일된 사회신

용코드 데이터 공유를 실현했다. 또한 경진기 데이터 실험실을 설립하는 한편 신용 분석 지리정보 시스템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다.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공유된 7억 2,400만개의 경영주체 신용 데이터는 등록, 행정허가, 행정처분, 경영 이상 목록, 심각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신용불량명단, 신용리스크 분류, 년도보고서 등 정보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운영 상황에 대한 경진기 시장감독관리국의 종합분석, 리스크 예측 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됐다고 전했다.

안휘, 안정·건강 태양광 저장 산업 발전에 박차

안휘성이 태양광 저장 산업에 대한 정책을 최적화하며 안정적인 고성장 태양광 저장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안휘성공업정보화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휘성의 첨단 태양광산업의 매출과 이익은 각각 3,284억 6,000만원, 100억 8,000만원, 신형 에너지 저장 산업의 매출과 이익은 각각 878억 1,000만원, 5억 7,000만원에 달했다. 목전 전성의 P형 배터리 슬라이스 생산능력은 전부 청산되었으며 광전 전환 효율성이 더 높고 기술력이 더 뛰어난 N형 배터리 슬라이스의 생산능력이 100%에 달한다.

안휘성공업정보화청 요계(姚凱)

부처장은 안휘성은 응용 혁신을 중심으로 태양광 저장 산업의 품질 향상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함과 아울러 '태양광+농업', '태양광+교통', '태양광+에너지 저장 및 충전' 등 응용 시범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휘성은 태양광 저장 산업 투자유치의 중점을 배터리와 모듈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고 발전 잠재력이 큰 핵심부품 및 산업사슬의 취약한 부분에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환경보호 산업을 테마로 하는 모펀드(母基金) 및 자펀드(子基金)의 역할을 통해 유수의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북경, 의약산업 발전에 박차

북경시가 의약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일전 북경시의료보장국 등 9개 부서는 <북경시 혁신의약 고품질 발전 지원 위한 약간의 조치>를 발표했다. 정책 차원에서 공동 노력을 통해 혁신의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혁신의약기업 전년의 활력을 꾸준히 자극해 1조원 규모의 의약건강 산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조치는 인민의 건강 수요와 경제 사회발전을 출발점으로 32가지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임상시험 프로젝트의 전체 시작 시간 20주 이내로 단축, 중점·특정 질병에 대한 전자동 스마트화 바이오 샘플 저장소 구축, 출시 약물의 임상적응증 연구

및 사용 확대, 의료기관 약품 목록에 국가의료보험 협상 약품 포함, '인공지능(AI)+병리', 'AI+제약' 등 사례 모형을 개발 배치, 500억원 규모의 의약건강산업 기금 조성 등이 포함된다. 패키지 증량(增量) 정책을 통해 혁신약품 및 의료기기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북경시의료보장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질생산력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 부서와 기업은 북경 '양구'(两区) 건설 정책의 기회를 포착하고 정책조치의 시행을 지원하며 혁신능력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리가장, 세계 스포츠 모자 3개중 1개 생산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스포츠 모자 3개중 1개가 우리 나라의 작은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다.

리가장(李家庄) 진을 중심으로 산둥성 교주(胶州) 시에서는 매년 약 5억개의 중고급 스포츠 모자 및 캐주얼 모자가 생산된다. 이에 따른 생산액은 약 35억원에 달하며 제품은 유럽·미국·일본·한국·아프리카 등 100여개 국가(지역)로 수출된다.

다양한 모자공장이 자리잡은 리가장진, 인구 12만명의 이 작은 마을에서 모자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30%에 달하며 원자재·부자재 조달, 제품 디자인, 가공제조, 물류 운송 등 전체 산업사슬을 아우르는 모자 관련 기업만 400개가 넘는다. 리가장진이 '중국 모자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리가장의 주요 수입원은 농업이었다. 그러다 1985년, 한 향향 상인이 현지 기업과 협력해 리가장진에 최초의 현대식 모자 제조 기업을 설립했다. 이 기업은 불과 3년 만에 국내 모자 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 마을 주변의 많은 가내 수공업의 발전을 견인했으며 모자채양, 버클, 장식 등 업스트림·다



청도금풍성택(金丰盛泽) 모자산업회사 전시장에서 스포츠 모자의 종류를 소개하는 직원 / 신화넷

업의 생산가치를 20%나 끌어올렸다.

특히 캡모자는 스포츠 모자의 중요한 품목중 하나로 그 제작 과정에 수십가지 공정이 포함된다. 2013년, 리가장 주민들은 캡모자에 대한 업계 표준 제정의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시도를 계기로 모자 제작 업계의 '국가표준'이 제정됐고 이를 통해 저가 경쟁 문제가 크게 줄어 전체 산

업의 생산가치를 20%나 끌어올렸다.

청도전풍(前丰) 국제모자예술회사 생산작업장, 비주얼 시스템이 정밀하게 위치를 파악하자 로봇팔이 빠르게 원단을 집어들이고 재봉 장비는 정확하게 각 재봉 공정을 수행한다. 이 복잡한 공정 한세트는 단 8초 만에 완성된다.

2018년부터 스마트 모자 제조 자

동화 생산라인 개발에 착수한 해당 기업은 자수, 채양 박음질, 재봉 등 60%의 자동화 생산을 실현했다. 자동화, 디지털화, 그리고 산업용 인터넷 기술의 도입에 힘입어 기업의 생산효율은 100% 향상됐고 인건비는 50% 절감됐으며 생산 주기는 28% 단축됐다.

이처럼 리가장진의 모자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마을은 표준화 작업장 조성, 스마트 공유 공장 설립, 자동화 장비 및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 비용을 약 30% 줄이고 생산효율을 약 4배 향상시켰다.

또한 리가장진의 모자산업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 제로 스마트 제조 작업장, 스마트 제조 연구개발(R&D) 센터, 산업 인터넷 전시센터를 일체화한 모자산업 클러스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작은 모자 하나가 일평균 수십억원의 산업은 전세계 소비자에게 정교하고 멋진 모자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일조하며 현지 경제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동 즉묵 '화훼경제' 농촌 진흥에 능력 부여



최근년간 산둥성 청도시 즉묵구 령산가두는 현대시설농업을 수단으로 화훼산업의 집약화 발전을 추진하고 '선두기업+합작사+농가'의 련농대농(联农带农) 메커니즘에 의탁하여 육묘 조직 양성, 현대화 재배, 전자상거래 판매가 일체화된 생산판매 모식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면서 농촌 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4월 13일, 한 화훼농이 즉묵구 령산가두 백옥오아시스화훼재배 기지에서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통해 화훼를 판매하고 있는 장면이다.

'2025 세계인터넷대회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 향향서

'2025 세계인터넷대회(WIC)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가 14일 향향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50여개 국가(지역)에서 온 정부 부처, 국제기구, 기업, 민간단체의 고위급 대표 및 전문가·학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전국정협 부주석 왕용(王勇)은 개막식 축사에서 중국정부는 항상 열린 자세로 디지털 시대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시아지역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과 인터넷 발전이 준 기회와 혜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 격차 해소, 경제·무역 협력 심화, 서로 다른 문명간의 교류·참조(互鉴) 증진에 적극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향향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리가초(李家超)는 이번 행사가 향향에서 개최된 것은 국제 혁신과학 중심지로서의 향향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한다면서 향향과 국가 발전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이며 세계인터넷대회 리사장인 장영문(庄荣文)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안보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서 디지털·스마트 융합의 발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우위를 제공하고 함께 더 나은 '디지털 미래'를 건설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